

목사 후보생들에 준 말

연말은 분주하면서도 쓸쓸하다. 세월이 흐름을 느껴서일까? 자기의 일년의 결산이 적자이기 때문일까? 가르치는 사람에게 쓸쓸한 이유의 하나는 졸업생을 내 보내는 탓도 있다.

한신대 졸업생 30여명이 관례대로 사은회를 베풀었다. 우선 그들의 스승의 노래는 매년 느끼는 대로 농담 같다. 노래의 뜻대로 저들이 스승의 은혜를 생각할까? 한 여학생이 노래로 감사를 표시하다 울어버린다. 나도 눈시울을 적실 뻔 했다. 스승을 떠나는 것이 슬퍼 우는가 아니면 험한 세상을 향하는 것이 슬퍼 우는가? 하긴 저들의 표정은 모두 우울했다. 하기가 저들이 나갈 세계는 화려하지 않다. 저들은 ‘오시오, 모든 것이 다 준비 됐오’ 하는 환영의 장소로 향하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.

저들은 ‘스승’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달란다. 매일 듣는 이야기인데, 또 들을 게 있을까? 나는 별 할 말이 없다. 또 강의를 펼 수는 없는 노릇이고, 그래서 나는 극히 구체적인 세 가지 부탁을 했다. ① 매일 성서를 읽으시오. 내 경험에 의하면 그것만큼 힘을 소생시키는 방법은 없더라. ② 설교는 꼭 교회에서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오. 시사평론이나 수필 같은 이야기야 신문 잡지에서 더 잘

하는 것이니. ③ 꼭 호신술 하나씩 배우시오. 그것은 정신 자세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나 몸의 훈련을 위해 필요하오. 진리를 머리나 말로만 증거 하는 게 아니오. 역시 몸 전체로 증거해야 하오.

얼마나 단순하고 고색찬연한 마지막 부탁인가! 그러나 그림의 명수가 되어도 초보적 데상은 언제나 바른 자세로 반복해야 하고, 세계적 권투선수가 됐어도 기본적 훈련을 계속해야 되듯이 이 셋은 가장 초보적이면서 언제나 반복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랬다. 어쩌면 참 진리는 가장 평범한지 모른다.

〈1971. 12. 『현존』〉